

# 하니, 가출 청소년으로 파격 변신...문제작 '어른들은 몰라요'

‘박화영’ 이환 감독 두 번째 연출작

10대 임신부 유산 소재로 민낯 담아

걸그룹 EXID 출신 안희연(하니)의 스크린 데뷔작으로 관심을 모은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가 베일을 벗었다. 10대 임신부의 유산 프로젝트라는 과격적인 소재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의 민낯을 그대로 담아낸다.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어른들은 몰라요'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배우 이유미, 안희연, 신해빛과 이환 감독이 참석했다.

영화는 가정과 학교로부터 버림받은 10대 임신부 '세진'(이유미)이 가출 4년 차 동갑내기 친구 '주영'(안희연)과 함께 험난한 유산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독립영화계 역주행 화제작 '박화영' 이환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다. 2018년 10대들의 리얼 생존기를 그린 '박화영'은 유튜브 조회 수 1185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전작 '박화영'에서는 어른들의 관심이 닿지 않는 가출생의 실태를 거칠게 그려냈다면 신작은 10대 임신부의 유산 프로젝트라는 설정을 섬세한 화법으로 담아낸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학폭) 이슈는 물론 거리를 떠돌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현주소와 어두운 현실을 가감 없이 조명한다.

신에 이유미와 EXID 출신 안희연(하니)이 각각 가출 청소년 세진과 주영 역을 맡았다.

'박화영'에 이어 '어른들은 몰라요'에서도 세진 역을 맡은 이유미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세진'이 왜 이러냐고 계속 물었다. '어른들은 몰라요'가 제목이기도 한데 내가 어른이어서 모르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며 "어느새 세진이 가궁 해졌고 캐릭터에 호기심이 생겼다"고 떠올렸다.

극 중 10대 가출 청소년 주영 역을 맡은 하니는 술, 담배를 하고 거침없는 욕설을 내뱉는 등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였다.

하니는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와 상반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격정이 안 됐다.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도 그렇고 영화를 찍고 싶었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격정보다는 연기를 안 해 본 내가

이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지, 어려운 장면이 많은데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더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전속 계약이 끝나고 처음 제안 받은 작품으로 개인적으로도 소중하고 특별하다고 꼽았다. 하니는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를 받았다. 앞으로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고 '그런 방향이 맞는 건가요'하고 물었는데 감독님이 '나도 그런걸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함께하기로 했고 바로 워크숍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두 달 정도 워크숍 시스템을 거쳤다는 그는 "이 영화를 찍을 때 연기가 정말 처음이었다. 워크숍 시스템을 통해 하나부터 열까지 배웠다"며 "캐릭터뿐 아니라 악쓰는 연기, 욕하는 연기 등 감독님께서 감정이 올라오도록 도와주셨다"고 떠올렸다.

이어 '세진'을 돌로 내려찍는 등의 과격한 신을 촬영한 것을 언급하며 "나는 28년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고하게 지켜왔던 무언가를 무너뜨려야 했다"며 "이후에는 생각보다 자유로워져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환 감독은 하니를 캐스팅한 배경에 대해 "터비 속 이미지가 건실하고 착하다. '문세아'라 금순' 같은 이미지였다. 캐스팅할 수 있다면



좋은 배신감을 줄 수 있겠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안희연씨는 융감한 배우다. 직업이 배우일 뿐 사람으로서 용기를 갖는 것은 어렵다. 거침이 없었다. 워크숍을 할 때도 한 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일단 부딪히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과감하고 집중력 있는 배우였다"고 치켜세웠다.

작품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처음 생각했을

때 당시 낙태 찬반 논쟁이 떠들썩했다. 사실 답을 못 내리겠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화두로 던져서 관객들과 토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영화가 세다고 하는데 센 것과 비례하는 것이 여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핍된 인물, 비정상적인 인물들이 대부분인데 인물들의 감정과 정서를 느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5일 개봉.

뉴스



## 넷플릭스, 장기용·채수빈 '새콤달콤' 6월4일 공개

"연애가 가진 현실적인 다양한 맛 솔직하게 담아낸 이야기"

영화 '새콤달콤'이 6월4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새콤달콤'은 매번 해도 어려운 연애, 새콤달콤한 연애의 맛에 제대로 빠져버린 달콤한 연인 장혁(장기용)·다은(채수빈)과 새콤한 매력의 보영(정수정), 세 남자가 그리는 로맨스 영화다. '덕기', '힘을 내요, 미스터 리'를 연출한 이계백 감독의 신작이다.

장기용은 장혁 역을 맡아 연애 초기 다정한 '스윗 가이'부터 점점 무심하게 변해가는 현실 남친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채수빈은 일도 사랑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간호사 다은으로 분한다.

대기업 파견직으로 근무하게 된 장혁이 만난 입사 동기 보영 역은 정수정이 맡았다.

넷플릭스는 "연애가 가진 현실적인 다양한 맛을 솔직하게 담아낸 이야기다. 연애의 첫인상만을 담아낸 역할적인 제목을 통해 한없이 새콤하고 달콤했던 연애의 첫맛부터 이별의 짜고 쓴 맛까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연애의 맛을 리얼하게 그렸다"고 밝혔다.

뉴스

## '군필돌' 하이라이트 완전체 출격

웨이브, 16일 공개

'군필돌' 하이라이트가 단독 리얼리티로 돌아온다.

Wave(웨이브)의 오리지널 웹 예능 '반전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16일 오전 처음으로 공개된다.

전 멤버가 완벽한 '군필돌'인 하이라이트는 단독 리얼리티 웹 예능 '반전의 하이라이트'로 '군백기'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멤버들의 새 예능 적응기와 색다른 도전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날 '반전의 하이라이트' 론칭 소식과 함께 공개된 '히든 포스터'에서 멤버들은 새파란 하늘 아래 해맑은 웃음을 띠며 정량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히든 포스터에는 '반전의 하이라이트'라는 타이틀에 맞게 다양한 반전이 숨어있다고 해 더욱 흥미를 끌어올렸다.

한편, 완전체로 돌아온 하이라이트는 현



재 새 앨범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영화 자산어보, '고질라' 누르고 5일 만에 1위 탈환

누적관객 18만3743명

영화 '자산어보'가 5일 만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탈환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망에 따르면 '자산어보'는 지난 6일 하루 동안 1만888명의 관객을 극장으로 들었다. 누적 관객 수는 18만3743명이다.

'자산어보'는 지난달 31일 개봉하며 연속 이틀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으나, 이후 '고질라 VS. 콩'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자산어보'는 흑산도로 유배된 후, 책보다 바다가 궁금해진 학자 정약전(설경구)과 바다를 벗어나 출세길에 오르려고 싶은 청년 어부 창대(변요한)가 '자산어보'를 집필하며 벗이 되어 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이준의 감독의 14번째 작품이다. 설경구가 유배지 흑산도에서 바다 생물에 눈을 뜬 학자 '정약전'으로 분해 처음으로 사극에 도전했다. 변요한이 섬 토박이 청년 어부 '창대' 역을 분했다.

한편 이날 '고질라 VS. 콩'은 9277명의 일일 관객수를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



했다. 누적 관객수는 58만3712명이다. 3위는 7522명의 일일 관객수, 159만 7149명의 누적

관객수를 기록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차지했다.

## '선녀들', 새 시즌 4월말 컴백...설민석→심용환 합류

더욱 막강해진 새 시즌 '선을 넘는 녀석들 : 마스터-X'로 방송 될 예정

MBC 역사 예능 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이 새롭게 돌아온다.

7일 MBC에 따르면 '선을 넘는 녀석들'은 더욱 막강해진 새 시즌 '선을 넘는 녀석들 : 마스터-X'로 오는 4월 말 첫 방송 될 예정이다.

이번에 돌아온 '선을 넘는 녀석들'은 '역사 확장판'으로의 탄생을 예고한다. '마스터-X'라는 부제도 함께 공개했다.

'마스터-X'는 다양한 분야의 선을 넘나들며, 새로운 지식을 마스터하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지난 시즌에서 배웠던 역사 분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지식의 선을 확장하기 위해 '미지의 마스터-X'가 새롭게 등장, '역사 마스터'와 또 다른 '미지의 마스터'가 만나 '크로스(X)' 된다는 의미를 더했다.

출연자 역시 변화를 맞았다. 새로운 전문가, 역사 마스터로 역사계에 떠오르는 역사학자 심용환이 합류를 결정했다.

심용환은 귀에 속속 들어오는 실명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TV, 라디오, 강연은 물론 최근 유튜브에서 조회수 약 400만 회 이상을 기록할 만큼 주목받고 있다. 신세대 역사학자답게 신선한 역사 강의로 큰 환약을 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지식의 선을 넘기 위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미지의 마스터-X'로 합류한다. 기존 멤버인 전현무, 김종민, 유병재와 함께 배움 여행을 하며, 새로운 재미를 펼칠 전망이다.

앞서 '선을 넘는 녀석들-리턴즈'는 지난해 12월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역사 강사 설



민석의 하차로 결방 끝에 결국 지난 1월 세 번째 시즌을 종료했다.

'선을 넘는 녀석들'은 역사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배움 여행으로 대한민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숨겨진 역사를 알아보는 탐사 여행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8년 3월 방송된 시즌1 해외편을 시작으로 지난 3년여간 역사 이야기를 대중화시키며 사랑을 받아왔다.

## 번지점프를 하다·독전·신세계·악녀, 극장서 재개봉

NEW(네스트엔터테인먼트)가 걸작 멜로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를 시작으로 '독전', '신세계', '악녀' 등을 연달아 재개봉한다고 7일 밝혔다.

7일부터 전국 CGV 시그니처 K에서 상영되는 '번지점프를 하다'는 82학번 인우(이병헌)와 태희(이은주)의 운명적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시대를 앞서갔다는 평을 받으며 2001년 개

봉 이후 꾸준히 회자돼 온 작품이다.

'독전', '신세계', '악녀'는 영화관 씨네Q에서 관객을 찾는다. '독전'은 오랫동안 마약 조직의 대부 김선생을 추적해 온 형사 원호(조진웅)가 버림받은 조직원 락(류준열)의 도움으로 그 실체에 다가가는 이야기로 그렸다. 개봉 당시 500만명을 극장으로 들었다.

'신세계'는 신임경찰 자성(이정재)이 최대 범

죄 조직인 골드문을 잠입 수사하며 그룹 실세인 정경(황정민)과 두터운 우정을 쌓게 되는 누아르 영화다.

'악녀'는 어린 시절부터 킬러로 길러진 숙희(김옥빈)가 국가 비밀조직에 스카우트돼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으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제70회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다.